



가발 등에 사용하는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인 톨루엔, 폼알데하이드 검출

36개 피부 부착형 접착제 안전성조사 결과

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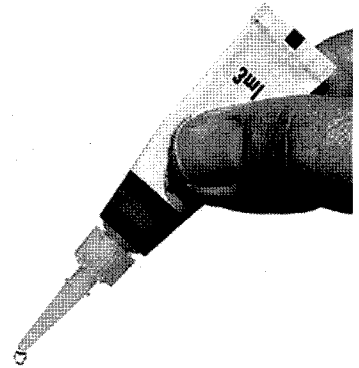
- 기술표준원은 인조속눈썹, 가발 등의 부착에 사용중인 접착제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, 36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톨루엔, 폼알데하이드 등이 검출되었다고 밝힘

※ 톨루엔 : 피부염, 두통, 흡입시 중추신경 장애, 혼수상태 등 유발

※ 폼알데하이드 : 알레르기 및 접촉성 피부염 및 두드러기 유발

- 이번 안전성조사는 가발 사용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

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전문샵 및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조속눈썹용, 가발용 접착제 36개 제품을 구입하여 톨루엔, 폼알데하이드, 중금속 등 유해성분 유무에 대해 조사함



조사 결과

- 안전인증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조속눈썹과 접착제의 경우, 18개 제품중 안전인증을 획득한 9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으며,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 9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톨루엔이 33.9 mg/kg에서 161 mg/kg이 검출되었으며, 이들 불법제품 제조(수입)·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판매중지 및 수거토록 시·도에 통보하였음

※ 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”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품목(14품목), 자율안전확인품목(47품목), 안전·품질표시품목(30품목)으로 구분하여 관리

- 현재 국내에 가발용 접착제로 판매중인, 18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톨루엔이 24 mg/kg에서 최대 29,000 mg/kg이 검출되었고, 1개 제품은 톨루엔 1,070mg/kg, 폼알데하이드 53mg/kg 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제품 구입시 주의가 필요함

※ 인조속눈썹용 접착제는 톨루엔과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을 20mg/kg 이하로 규정

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

- 기술표준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제조·수입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, 해당업체들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자진 수거와 판매중지 등의 조치토록 하였음
- 한편, 가발용 접착제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불량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임
- 이번 조사결과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(www.safetykorea.kr)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, 관련 자세한 내용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

